

— S-23 —

관상 중복 결장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사선과학교실

*민정오¹ · 김태호² · 김창환³ · 조근종⁴ · 한석원⁵ · 임연수⁶ · 최규용⁷

=서론= 중복 결장은 드문 선천 기형이다. 대부분 유년기에 발견되고 이중 약70%는 2세 미만에서 진단되며 어른에서 발견되는 빈도는 매우 드물다. 발생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형태상으로 구형과 관상형으로 구분 된다. 진단 검사로는 바륨 관장, 복부 초음파, 대장 내시경,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이 있다. 증상이 있거나 출혈, 천공, 악성화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수술적 절제를 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예후는 양호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비특이적인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59세 여성에 시행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결장의 관상 중복 결장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9세 여자가 만성적인 식후 복통을 느껴오던 중 내원 3일 전부터 우상복부 통증 동반되어 외래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급성 병색을 띄고 있었으며,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다. 그 밖의 이학적 검사에서 결막이나 공막에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고, 경부 촉진과 흉부 청진에서 이상 소견 없었다. 장음은 정상 범위 내였고 복부에 종물은 촉진되지 않았다. 말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7800/mm³, 혈색소는 13.6 g/dL, 헤마토크리트 40.5 %, 혈소판 306,000/mm³이었다. 생화학 검사에서 BUN 11.2 mg/dL, 혈청 creatinine 0.7 mg/dL, AST 18 IU/L, ALT 12 IU/L, 알부민 4.3 g/dL, alkaline phosphatase 87 IU/L 이었다. 대장 내시경 시행 결과 상행 결장 기시부와 횡행 결장의 기시부부터 말단부에 이르는 중복 결장이 관찰되었고 병변의 양끝은 횡행 결장과 연결되어 있었다(그림1). 횡행 결장 기시부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 결과는 만성 염증으로 나왔다. 그 외 회장 말단부위에 결절성 점막 소견 보여 조직 검사 시행한 결과 림프구 증식으로 진단 되었고, 횡행 결장 기시부와 에스상 결장에 각각 0.3cm, 0.8cm 크기의 용종 있어 조직 검사 시행한 결과 1등급의 이형성을 보이는 관상 선종으로 진단 되었다. 위 내시경에서는 위축성 위염의 소견을 보였고, 중간 체부의 위소만 곡에 0.2cm 크기의 과형성 용종이 관찰되었다. 바륨 관장 시행한 결과 2개의 지절(limb)로 구성된 관상 중복 결장이 관찰되었다(그림2). 병변은 오른창자굽이를 제외한 기시부 횡행결장에서 왼창자굽이까지 관찰되었으며 양측의 말단부위는 정상 결장과 통하였다. 그 외에도 게실 들이 상행 결장과 오른 창자 굽이에 다수 관찰되었다. 복부 초음파에서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적 치료 없이 증상 호전되어 경과 관찰 중이다.

— S-24 —

성인에서 발생한 대장의 저신경절증 1예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상균 · 김상욱

Colonic hypoganglionosis (HG) is one variant of the colonic ganglion cell disorders. It is characterized histologically by a small number of ganglion cells in intestinal myenteric plexuses and functionally by severely impaired gut motility. Most cases reported in the literature occur relatively late in childhood, and usually involve mild constipation. In our case, the patient that had a megacolon from severe constipation was investigated. He had had repetitive admissions due to abdominal distention and ileus. The conservative management failed to relieve ileus, and thus subtotal colectomy was undergone. The patient had recovered normal bowel habit in five months after operation.

